

슬쩍 찍은 사진은, 별 볼일 없다

좋은 인물사진을 얻는 법



글 이상엽 사진작가

쿠차는 카라부란(흑폭풍)으로 어두워지고 거리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모래바람에 갇혔다. 신호등이 고장났는지 차들은 시끄럽게 경적을 울려대고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건물로 피신한다. 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으며 인간이 자연 앞에 무력한 풍경 속에서 쾌재를 부르며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중국 신장웨이우얼자치구의 도시 쿠차는 북쪽으로 천산의 황토고원을 남쪽으로는 타클라마칸 사막을 두고 있다. 두 곳의 모래먼지가 만나 거대한 폭풍을 만들면 이름도 으스스한 흑폭풍인 '카라부란'을 만든다. 흔히 생각하는 우리나라 봄철 황사를 100배쯤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지나던 기차도 전복하고 사람도 날아 간다.



결국 이 폭풍 속에서 내 전자식 카메라는 장렬히 사망하고 말았다. 하지만 준비해온 것이 있다. 전자장 치라고는 전혀 달고 있지 않은 50년대 완전 수동식 카메라. 사막에서도, 남극에서도, 에베레스트에서도 작동되는 그런 카메라다. 이놈을 들고 돌아다니다가 폭풍에 갇힌 두 남녀를 봤다. 연인은 꼭 끌어안고 비장한 로맨스를 연출하고 있다. 이 인물들을 거친 풍경 속에서 어찌 표현할까를 순간 고민한다. 마침 먼 곳에서 힘겹게 자전거를 끌고 오는 아줌마도 보인다. 이제 내 카메라 프FP임 안에 이 요소들이 완전한 조화를 이룰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그 전에 어떤 요소도 사라져서는 안된다. 이윽고 셔터를 누른다. 내가 원하는 풍경 속 인물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이 한 장을 위해 카메라 한 대를 고장 낸 셈이다. 하지만 사진은 내게 충분히 보상한다.



카메라와 바꾼 인물사진 한장

흔히 ‘인물사진’이라는 것은 사진의 주요 피사체가 사람인 사진이다. 풍경 속에 인물이 있는 사진을 얻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카메라를 메고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특별한 장면을 작가의 의도대로 파인더 안 프레임에 결정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예로 ‘결정적인 순간’의 앙리 카르티에-브레송을 들 수 있다. 그는 35mm 라이카 카메라를 들고 재빠르게 사물이 어떤 조화의 정점을 이룰 때 그것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의 사진은 비연출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구도와 인물의 포즈를 포착함으로써 당대 사진가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20세기 초 만해도 35mm 소형카메라 보다는 4×5inch 이상의 대형카메라를 삼각대에 올려놓고 충분한 여유와 연출된 피사체를 찍던 것이 관행이었으니 카르티에-브레송의 순간적인 포착은 경이로울 수밖에 없었다.

사진이 발명된 후 가장 많이 제작된 사진은 인물사진이었다. 우리 어린 시절, 장롱 안에 고이 간직됐던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는 경우란 대부분이 졸업식이나 소풍 때였다. 이때 찍힌 사진들은 아직도 우리 앨범 안에 고이 간직된 인물사진들이다. 사진 안에 담긴 인물들은 세월이 흘러도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며 우리를 추억에 빠지게 한다. 발터 벤야민이나 수잔 손택이 이야기하는 사진의 ‘아우라’가 형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진들이 “잘 찍혔는가?”는 다른 문제다. 우리 아버지들이 찍은 사진의 나는 늘 사진의 중앙에 서있고 뭔가 어정쩡한 자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프레임 안에서 어떻게 구도를 잡을 것인가를 고민한다. 그리고 사진이 쉽지 않구나 생각한다.

하지만 인물사진을 잘 찍는 것은 요즘 카메라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카메라 파인더 안의 스크린을 보면 격자무늬가 있고 가급적 찍고자하는 인물을 이 무늬의 황금비 포인트에 놓고 찍으면 된다. 또 70~135mm 사이의 중간 망원렌즈를 사용하면 프레임은 딱 차

고 얇은 심도의 아름다운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는 최근 만들어지는 카메라 기술로 보면 별거 아닌 것이다. 하지만 인물이 좀 더 매력적이고자 한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나의 행위가 단지 사진을 얻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찍고자 하는 대상과 교감을 위한 것인지 말이다.

한때는 카르티에-브레송이 경이로웠다

책에 실린 한 사람의 인물사진을 유심히 본다. 꼭 다문 입술, 뚫어지게 쏘아보는 눈빛, 툭 튀어 나온 이마의 사내. 이 글을 쓰기 위해 펼쳐든 뷰먼트 뉴홀의 <사진의 역사> 98쪽. 에피엔느 까자르가 1863년에 찍은 작가, 샤를르 보들레르의 사진이다. 그는 평소 사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예술적인 어떤 부분에서 사진으로 하여금 그 일을 대신하게 한다면 사진은 자신의 동맹군이라 여길 어리석은 대중의 힘을 빌어 예술의 자리를 대신하고 예술을 망칠 겁니다. 그러므로 사진은 원래의 역할, 예술과 과학의 시녀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진을 독립된 예술이 아닌 종속된 장르로 위치지우고 싶었던 그의 독설과 달리 보들레르는 매우 잘 찍힌 인물사진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자신의 거의 유일한 후원자였던 어머니의 초상사진을 얻기 위해 파리의 유명한 사진가들을 찾았고, 자신도 역시 그런 사진가들에게 자신을 찍어줄 것을 요청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에 대한 전위적 문학가로서의 이미지는 글이 아닌 사진을 통해서 일지도 모른다. 당시 지식인들의 사진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는 비단 보들레르만은 아니었다. 회화에 비해 너무도 선명한 사진의 사실성은 노골적이라는 혐오감과 함께 무척이나 매력적인 것이었다. 게다가 사진의 저렴한 가격은 누구나 초상을 얻을 수 있게 했다. 화가들은 더 이상 사실적인 그림을 그려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상파의 시작은 바로 사진이 추동한 것이었다.

얼마 전 나는 지인들과 함께 중국 서쪽 끝 카슈가르에서 파미르의 고원도시 탁스쿠르간까지 여행을 한 적이 있다. 거친 풍광 속에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 반갑지만 그들에게 다가가 사진을 찍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사진 찍는 이의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타인에게 자연스럽게 다가



가 인물사진을 찍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낀다. 그 어려움의 근본은 ‘거절’ 당하는 민망함에 있다. 그래서 슬쩍 몰래 찍거나 뒤통수 찍은 것에 만족하는 경우를 본다. 하지만 이런 사진은 대부분 별 볼일이 없다. 진정으로 타인의 얼굴이 담긴 좋은 사진을 얻으려면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피사체의 진정한 동의를 얻는 것이다. 그 동의는 언어를 통해 전달될 수도 있지만 의미 있는 눈길만으로도 가능할 때가 있다. 즉 나는 ‘적의 없이 당신의 사진을 얻고 싶다’고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찍을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찍을 것인가가 더 중요해진다. 거리로 나가 인물과 풍경이 어우러진 좋은 사진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



좋은 사진을 얻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 사물을 충분히 관찰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지나가다 괜찮다 싶어 한 장 누른 사진은 별 볼일 없다. 그 장면이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면 다시 한번 관찰하며 어떻게 찍어야 완전한 작품을 얻을까 고민해야 한다. 나는 영하 30도의 단둥에서 그런 사진을 얻기 위해 30분을 한자리에 기다린 적도 있다.

둘째, 자신이 찍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충분히 예를 갖춰라. 거리에서 몰래 찍은 사진은 상대방 뿐 아니라 사진가 스스로를 불편하게 한다. 상대방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악의가 없음을 표시하고, 그의 행동과 표정이 풀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상대방이 찍힌 대가를 원한다면(예를 들어 그곳이 인도라면) 관습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지불하라. 그래야 ‘빼어’ 한 것이다.

셋째, 다가가라. 찍고자 하는 대상에 접근할수록 사진은 점점 좋아진다. 로버트 카파가 한 명언은 여러 번 이야기해도 지겹지 않다. “너의 사진이 충분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너는 충분히 다가가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어렵다고? 그렇다면 당신은 먼저 가족들 찍고 그 사진이 마음에 든다면 친한 지인들을 찍어보라. 점점 더 사진에 자신감이 붙는다면 어느새 타인에게 다가갈 준비가 된 것이다. ㉞

이 상 업

다큐멘터리사진가. 8년 넘게 다큐멘터리사진 전문 웹진 <이미지프레스>를 운영했고, 지금은 프레시안 기획위원을 맡고 있다. 사람들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삶의 현장에 카메라를 들고 뛰어 들지만, 기실 홀로 오지를 떠도는 일을 좋아한다. <레닌이 있는 풍경>, <늙은 카메라를 들고 떠나다> 등을 쓰고 <중국 1997~2006> 등을 전시했다. 네이버 ‘오늘의 포토’ 심사위원을 지냈다.